

2009년 가을 학기
전 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청지기들

메시지 3

구약의 예언들의 성취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2)

성경: 사9:1-5, 60:1, 5상, 시69:9상, 마 4:12-16, 요 2:13-22, 롬 12:11

V. 그리스도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백성에게 떠오르시는 큰 빛이시다—사 9:1-5, 60:1-5상, 19.

- A. 이사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예언은, 어둠에서 행하고 죽음의 그늘에 거하는(눅1:78-79) 백성에게 그리스도께서 큰 빛—참 빛, 생명의 빛(요1:9, 4, 8:12)—으로서 비추실(요1:5, 행 26:18, 벧전2:9) 때 마태복음 4장12절부터 16절에서 성취되었다.
- B. 그리스도의 비추심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이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새로운 빛으로 밝아오며 새로운 빛 비춤과 신선한 능력을 지니고 거듭거듭 비추어주는 그분의 구원하는 말씀이 필요하다—요6:63, 요일 2:8.
- C.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빛으로 비추심은 그들을 죽음의 어둠에서 구원하고 어둠의 속박에서 해방하며(사9:2, 골 1:13), 그들이 메고 있던 멍에를 깨뜨리고(사9:4, 10:26-27), 전투장비로 무장한 그들의 대적을 멸망시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비추심으로 사탄을 패배시키셨을 뿐 아니라 사탄의 갑옷인 ‘신발’과 ‘복장’을 태우셨다(9:5).
- D. 주님의 비추심으로 그분은 감옥에 갇힌 이들을 속박에서 해방하신다. 이렇게 속박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심은 결국 추수 터에 있는 농부들이자 전리품을 획득하는 전사들인 신약의 모든 믿는이들을 통해 온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가, 그리스도의 확산, 그리스도의 성장으로 귀결된다—3절, 딤후 2:1-4, 6, 롬 13:12, 14.
- E. 그리스도의 비추심으로 주님께서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이겨 큰 승리를 거두었던 미디안의 날에서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무거운 멍에를 깨뜨리시고 그들의 어깨에 있는 멍둥이를 깨뜨리시며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다—사9:4, 삿7:3-7, 9-15, 22-25.
- F.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그 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발하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사60:1, 5상, 19하, 참조 6:1-8.
- G.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요1:4-5.
 - 1. 생명은 나누어주신 하나님이고, 빛은 비추시는 하나님이다. 생명은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빛은 그리스도의 임재이다—14:6, 8:12, 17:4.
 - 2. 빛은 어둠을 정복하고 패배시키고 이긴다.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이 질서 있고, 모든 사람이 평안하다

—숙2:5.

- H. 우리는 ‘등불이 그 빛을 비출 때처럼 온몸이 온전히 밝도록’ 마음이 단일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눅11:33-36, 1:78-79, 잠 4:18, 엡 5:8-10, 사 5:31, 요 8:12, 고후 3:16, 18, 4:6-7, 시
119:105, 130, 요일 1:5, 9, 말 2:7, 3:1, 4:2, 시 73:17, 77:13, 마 5:14, 16, 13:43상.
- I. 요한계시록은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이 가득한 책이다—1:1,
9-20, 참조 겔 1:1-3.
1. 요한계시록에서 밝혀지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는 빛의 인격이시다—계1:17-18.
 - a.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고, 그분에게는 불꽃같은 일곱 눈이 있고, 그분
의 발은 용광로에서 제련된 빛나는 놋쇠와 같다—계1:14-16.
 - b.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천사인 ‘다른 천사’로서 돌아오실 것이고
은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밝아질’ 것이다—18:1.
 2. 교회들의 전달자들은 빛나는 별들이고 신성한 빛을 맡은 이들로써 영의 새로움으로 주님을 섬긴다—
1:20, 2:1, 롬 7:6.
 3. 이기는 이들의 보상은 셋별이신 그리스도이다—계2:28.
 4. 일곱 영은 예수님의 증거인 금 등잔대의 일곱 등잔으로서 보좌 앞에서 불타는 일곱 등불이다—4:5,
1:11-12, 20, 참조 2:4-5, 7, 17, 3:20-21.
 5. 하나님의 백성은 우주적인, 빛나는, 비추는 여자이다—12:1.
 6. 새 예루살렘의 빛은 어린양—등이신 구속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추시는 하나님이다—21:23, 22:1.
 7.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발산체로서 성 밖의 민족들에게 신성한 빛을 발산한다—21:9-11, 23-24상.
 8. 거룩한 성의 빛은 유일하고 영원하고 신성한 빛으로서, 성 안에 있는 구속받은 선민은 그 빛 가운데
서 살고 움직이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연적인 빛인 해나 달이 필요 없고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빛도 필요 없을 것이다—23, 25, 22:5상.

VI.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정이 그분을 삼킨 분이셨다—시69:9상.

- A. 주님은 그분의 아버지의 집을 위한 열정으로, 그 집의 더럽혀진 모든 것을 몰아내신다.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이 '주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입니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였다."—요2:17.
- B. 주님은 골풀로 만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탁자를 뒤엎으시며 그들에게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십시
오."라고 말씀하셨다—14-16절.
- C.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이나 그분의 움직임을 위한 기도 외의 다른 것으로 가득한 많은 것에
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오셔서 뒤엎으시며 우리의 생활을 간섭하신다—시42:8, 약 5:17, 참조 겔
1:15-21.
- D.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심에 의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생
명을 해방하시는 죽음과 생명을 분배하시는 부활을 지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
도로 체험함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신다—요2:13-22,
12:24, 눅12:49-50, 19:45-48, 사 56:7, 왕상 8:48, 단6:10, 행 6:4.
- E.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시고, 하나님의 단체적인 성전인 교회
의 건축을 위한 그리스도의 열정이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채워져야 한다. 우리의 영 안에 불타는
이러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롬12:11, 사 4:4), 우리는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1.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셔야 한다. 그분의 나타나심이 있는 신성한 빛 비춤이 우리를 얻는다—고후2:12-17, 4:6-7, 엡 3:1, 4:1, 6:20.
 2.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한다. 우리는 구속하시는 분, 비추시는 분,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생명의 열매가 증가하도록 생명의 교통 안에서 그분을 생명의 공급과 생명의 길로 누려야 한다—롬4:12, 창12:1-3, 6-8, 13:3-4, 18, 17:1, 5, 18:2, 약 2:23, 요일 1:3, 계 21:23, 고후 4:4, 6, 계 22:1-2, 21:21하.
 3.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아들께서는 평생 아버지께 복종하셨고, 생명의 영의 법이자 복종의 법인 그분의 복종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은 복종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었던 첫 번째 하나님—사람의 본에 따라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다—빌2:5-11, 엡 5:18, 21, 롬 5:17, 21, 8:2, 마 8:9.
- F.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 우리를 삼키는 것은 예루살렘(교회) 안에 있는 시온(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인 이기는 이들)이 되기 위해 우리가 몸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이다.
1. 시편 131편은 시온으로 올라가는 성도가 여호와 앞에서 그의 겸손한 마음과 고요한 혼에 관해 찬양한 것이다.
 - a.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고 기이한 일들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힘쓰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젖을 떼거나 주님 외의 모든 것이 벗겨져 고요하고 평온한 혼을 우리 속에 가져야 한다—1-2절.
 - b.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겸손하고 고요하고 평온하고 젖을 떼게 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할 수 있다—3절.
 2. 시편 132편은 시온으로 올라가는 성도가 여호와의 처소에 관해서와 그분의 기름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으로 말미암은 시온에서의 안식에 관해 찬양한 것이다.
 - a. 시편 기자는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을 예표하는 다윗의 모든 환란을 기억하시기를 여호와께 구했다—1절.
 - b. 2절부터 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다윗의 갈망을 본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에 있는 그분의 안식처 안으로 언약궤와 함께 들어가시기를 원했다 (6-8절). 오늘 이 안식처는 교회들 안에 있는 이기는 이들이다.
 - c. 13절부터 18절까지는 시온에 관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최고의 교회 생활—하나님의 산의 최고봉인 시온에 있는 이기는 이들의 상황—에 대한 그림이다.
 - (1)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처소로 삼기를 갈망하시어"—13절.
 - (2)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갈망하였음이로다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14-15절.
 - (3)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16-18절.